

“임실군 육성사업 위기… 희망의 끈 놓지말아야”

진남근 부의장·김왕중 위원장, 5분자유발언서 군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

임실군의회 진남근 부의장(임실읍·성수면·사진 원목)과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은(정음·오수·삼계·강진·덕치·지사면·사진)은 6월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안전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먼저 진남근 부의장은, “우리군의 재정지급도는 7.06%에 불과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어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중도 하차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2015년 4월



삼계 박사골 마을이 선정돼 추진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고, 2015년 11월을 강진 옥정마을과 2016년 12월 성수 당당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민선 6기의 욕에 티가 되지 않도록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악취로 인한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악취의 원인인 분사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 판단돼 악취근절을 위한 분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지만 매입한 분사 외에 53개소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따른 행정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 할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서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지역의 악취민원 발생요인을 전수 조사하고, 폐업에 대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임실을 소재지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군은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간 지역의 소규모 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읍 소재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다”며, “낙농 및 축산과 연계한 제조업 시설인 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도축장 등 3박자가 맞춰지는 시스템을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유지하

고,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팜랜드 등 위탁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울러 김 의원은 “임실군 공유재산(토지)의 약8%가 임야로, 임야를 이용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대부분 징수현황을 봤을 때 16년 330만원, 17년 157만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조건을 완화해 주고 임실군민이 임야를 통해서 소득 창출과 관련해 “우리군은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간 지역의 소규모 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읍 소재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다”며, “낙농 및 축산과 연계한 제조업 시설인 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도축장 등 3박자가 맞춰지는 시스템을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유지하

고,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팜랜드 등 위탁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농기센터-농협 순창지부

농가소득 증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가 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기술교류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한재현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 6차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농업관련 개발기술의 브랜드화, 마케팅 및 기술 컨설팅 협력 ▲농업경제체 조직화 및 교육 ▲농특산물 유통서비스 기반구축 구조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및 경작순환 기술개발로 산업화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업무협약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우수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로 순창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농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남원시보건소(소장 최대성)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을 예방하고, 밝고 열광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갑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운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주고,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임실군, 민원안내도우미 서비스 큰 호응

팀장 5명 구성 맞춤형 소통

일 처리 속도·능력 향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실군청 민원실 문화가 ‘확’ 달라지면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군민소통형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임실군이 시행 중인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는 군민들의 민원처리 불편을 크게 덜어주며, 발빠른 민원해결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실군청 민원실을 찾는 지역민들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는 민원안내도

우미는 민원봉사과 팀장 5명으로 구성됐다. 별도의 도우미 직원을 두지 않고, 팀장들이 직접 나서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청사 위치 안내를 비롯해 서류 작성 보조와 노약자 등 거동불편 민원인의 업무대행, PC·팩스 등의 사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그 덕에 민원인들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해매지 않고, 친절함 서비스를 받으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군청 민원실을 찾는 일일 방문객 수는 200여명으로 하루평균 300여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민원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주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목

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도입 이후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능률 또한 크게 향상됐다.

민원실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민원인 쉼터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민원마일리지제 도입 등과 같은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여권 연장 업무를 하고 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안내도우미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친절함 민원대가 가능해졌다”며 “민원안내도우미를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영철 기자



남원시 온실운영프로그램 사진

ICT기술 접목 스마트한 원예산업 육성

남원시, 파프리카·상추·딸기 등 지역특화품목 중점 추진

남원시에서는 시설원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는 낮추면서 폭한·혹서기 기후조건을 극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등 첨단농업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간편형 스마트팜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우스시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감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지원하여 모바일PC를 통해 온실의 자동화, 온도 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첨단 센싱, 모니터링, CCTV, 제어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온도·습도 측정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작물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동해결을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등 첨단농업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간편형 스마트팜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우스시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감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지원하여 모바일PC를 통해 온실의 자동화, 온도 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첨단

센싱, 모니터링, CCTV, 제어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온도·습도 측정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작물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동해결을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등 첨단농업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간편형 스마트팜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우스시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감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지원하여 모바일PC를 통해 온실의 자동화, 온도 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첨단

건강음료 '하루채음수' 개발 순창군, 기술이전 추진 산업화

순창군이 지역 농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건강음료 '하루채음수'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에 나서 향후 산업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루채음수는 오미자 등 향당노 효능이 있는 농산물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당환량을 대폭 낮췄다. 군은 갈증해소, 기력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강장수연구소는 향후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나설 방침이며 기술이전 시 순창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해 지역 농가

소득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동남아 수출을 위해 미인파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 후 수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번 개발은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소재 개발 및 교부가 가치 제품과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뽕베는 농업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행사문의
 진안군청 진학산업과
 063-430-2951